

# 구리 공급 부족에 넷제로 목표 달성 차질 우려 – S&P글로벌

이진원 기자 입력 2022.08.02 10:52 댓글 0

2050년까지 1900~2021년 전 세계 소비된 구리보다 많은 수요 예상

기존 수요 외에 전기차와 태양광 분야 수요 급증

구리 광산 가동률과 재활용 높여도 수급 격차 해소에 한계



전 세계적으로 구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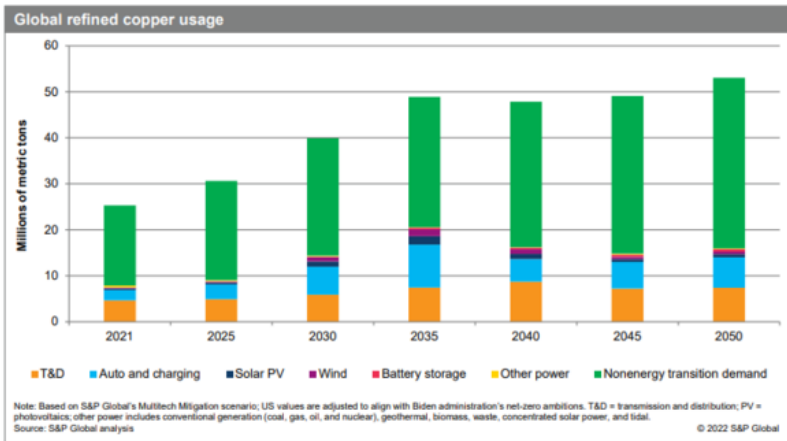
[ESG경제=이진원 기자] 구리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S&P 글로벌은 최근 에너지 전환에 따른 향후 구리 수요와 가능한 구리 공급 사이에 벌어지는 격차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구리의 미래: 구리 수급 격차가 에너지 전환에 지장 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기술을 추진하기 위해선 2035년까지 글로벌 구리 수요가 현재의 2500만 메트릭톤에서 5000만 메트릭톤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2050년이 되면 다시 1900년도와 2021년 사이 전 세계에서 소비된 모든 구리보다 많은 5300만 메트릭톤까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정부,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광물들 공급의 가용성과 신뢰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 <글로벌 정제 구리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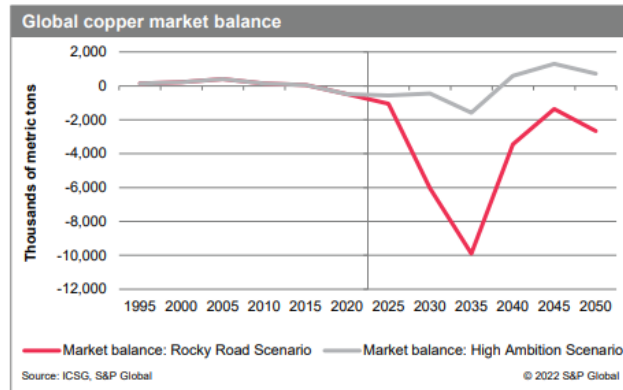


(출처: S&P500 글로벌 보고서)

구리 수요가 이처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태양광 발전, 풍력, 배터리 같은 기술을 구현하는 데 구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술 분야에서의 구리 수요는 2035년까지 지금의 3배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동시에 에너지 전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통적으로 구리를 많이 쓰는 곳에서의 구리 수요 역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 <글로벌 구리 시장 수급 격차 전망>



(출처: S&P 글로벌 보고서)

보고서는 “이러한 새로운 구리 수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구리 공급이 전례없는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며 “신규 광산을 개발하거나 기존 광산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IEA에 따르면 신규 광산 하나를 개발하는 데만 평균 16년이나 걸린다. 이는 다시 말해 오늘 당장 광산 운영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적기에 급증한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뜻이다.

#### 구리 광산 가동률과 재활용 높여도 수급 충당 힘들어

따라서 보고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광산 가동률을 늘리고, 구리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광산 가동률과 구리 재활용을 ‘최대한도로’ 늘린다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도 2030년대까지 구리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다시 말해서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구리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수급 격차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모두 공급망에 혼란을 일으키는 등 글로벌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리가 에너지 전환과 관련 없는 광범위한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구리 공급이 부족해진다면 이는 구리값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제품 제조 단가와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